

# 方劑

## 1. 方劑의 구성원칙 : 君臣佐使論

處方 구성에 있어 藥物을 配合하는데 藥物의 相互協力작용을 表示한 것.

- ① 君藥 : 主劑. 가장 主效한 治療效果가 있는 藥物.
- ② 臣藥 : 主藥의 補助藥. 主藥을 補助하여 主證의 治療작용을 增強하는 藥物.
- ③ 佐藥 : - 佐助作用 : 君藥이나 臣藥에 協助하여 治療효과를 증강(兼證 또는 副次的으로 次要한 證상을 治療)  
- 佐制作用 : 君臣藥의 毒性和 烈性 혹은 偏盛을 制約 消除하는 藥物  
- 反佐法 : 君藥과 상반되는 性味이면서도 같이 응용하여 治療작용 일으킴(藥物反佐, 服用反佐)
- ④ 使藥 : - 引經藥 : 方中の 모든 약이 病所에 도달하도록 하는 藥物  
(예)少陽經(柴胡 靑皮) 陽明經(白芷)  
- 調和諸藥 : 方劑構成藥物의 氣味를 조화시킴

※麻黃湯 : 君藥- 麻黃, 臣藥- 桂枝, 佐藥- 杏仁, 使藥- 甘草

## 2. 七方. 十劑

- 1) 七方 : <素問至眞要大論> “治有緩急 方有大小” “補上治上制以緩 補下治下制以急”  
“君一臣二 奇之制也 君二臣四 偶之制也” “奇之不去 則偶之 是爲重方”

七方	病狀	藥物	處方	비고
大方	邪氣强盛, 病에 兼證	藥性强 多種 多量 君二臣三佐九	大承氣湯(下法)	下焦重病치료
小方	邪氣輕淺 兼證無	少量, 자주 服用 君一臣二	小承氣湯 葱鼓湯(汗法)	上焦病치료
緩方	慢性的虛弱病症	藥種多, 無毒 甘味섞음, 平順한藥 不厭 頻而小	四君子湯(補法)	補上治上
急方	急性疾病	藥性强厚 湯藥사용 不厭頓而多	四逆湯(溫法)	補下治下救急治療 表證치료
奇方	단순 病因	한가지 또는 홀수의 약	獨蔘湯	
偶方	病因複雜	두가지 또는 짝수의 약	金匱腎氣丸	
複方	病勢複雜, 慢性病	여러 처방을 결합 合二三方爲一	柴胡桂枝湯 大靑龍湯	

## 2) 十劑

- 唐代 陳藏器 <本草拾遺>에서 처음 제창

十劑	功效	處方例
宣	宣可去壅(울체를 흩어지게)	薑, 橘之屬 二陳湯 瓜蒂散
通	通可去滯(막힌 것을 통하게)	防己之屬 十棗湯
補	補可去弱(허약을 건강하게)	人蔘, 羊肉之屬 四君子湯
泄	去閉(막힌 것을泄瀉하게)	葶藶, 大黃之屬 大承氣湯
輕	去實(外表로 邪氣를 나가게)	麻黃, 葛根之屬 麻黃湯
重	去怯(불안을 鎮靜)	磁石, 鐵粉之屬 朱砂安神丸
澀	去脫((빠져나가는 것 방지)	牡蠣, 龍骨之屬 金鎖固精丸 養臟湯
滑	去着(邪가 응결된 것을 매끄럽게)	冬葵, 榆皮之屬 葵子散 麻子仁丸
燥	祛濕(濕을 제거)	桑白皮, 赤小豆 二妙丸
濕	去枯(津血고갈을 滋潤)	白石英, 紫石英 瓊玉膏

### 3. 藥物의 劑型

#### 1) 湯劑 : 물로 藥을 달여 그 藥汁을 복용하는 것

- 特徵 : 응용범위가 가장 넓고 흡수가 신속, 加減이 容易, 작용이 신속

---> 急性病에는 湯劑사용이 가장 좋다

※ 煎劑 : 찌꺼기를 제거하고 재차 달이는 것(일반적으로 湯劑와 煎劑는 같은 뜻으로 쓰임)

※ 先煎 : 鑛石, 貝殼類(石膏, 牡蠣), 毒性藥물(生南星, 生草烏) - 유효성분 轉出과 毒性減少

後下 : 芳香性 藥물(薄荷, 砂仁)

包煎 : 粘性藥물(車前子), 帶毛한 藥물(旋覆花) : 絲包袋中에 包入

別煎 : 귀중한 藥물(人蔘, 犀角 등)

沖服(調服) : 貴重하면서도 用量이 적고 煎湯에 적합치 못한 藥물(琥珀, 朱砂, 三七根)

=>細末해서 湯劑에 혼합하거나 溫水에 풀어서 복용함

溶化(烱化)服 : 膠質, 無氣鹽類등(阿膠, 芒硝, 鹿角膠, 飴糖) 水煎하면 쉽게 糊가 되는 것들

#### 2) 丸劑 : 腸胃 중에서의 흡수가 緩慢하여 慢性病치료에 응용

- 丸劑의 운용

①長期 虛弱 질환 : 六味地黃丸, 腎氣丸

②瘀血, 癥瘕, 積水 등에 湯藥으로 猛攻하기 힘들 때 : 抵當丸 舟車丸(주거환)

③毒性藥物을 달이기 힘들 때 : 備急丸

④冰片, 麝香 : 至寶丹, 蘇合香丸

#### 3) 散劑 : 藥物을 부수어서 細末로 하여 內服 혹은 外用

- 서서히 흡수됨, 지속적인 효과나 위장에 머물 필요가 있는 약은 散劑로 함

- <聖劑經> 散者 取其漸漬而散解 其治在中 : 散劑가 胃에 직접 작용

ex) 五苓散, 平胃散

#### 4) 膏劑 : 藥物을 물이나 식물성 기름에 煎熬하여 濃縮하여 만듦

① 內服 : 慢性病치료, 滋補劑 : 瓊玉膏

② 外用 : 外科膿瘍, 風寒濕痺痛 - 薄貼(박첩) --> 膏藥

#### 5) 丹劑 : 丸보다 귀중한 藥品을 많이 써서 만든 것

#### 6) 酒醴(≡藥酒)

- 酒는 性은 溫通하고 藥力이 전신에 미치는 것을 도와주어 風을 물러가게 하고 血을 활성화하는 효능이 있어 痺痛을 수반하는 질환에 널리 사용됨

- 內經의 鷄矢醴, 金匱要略의 紅鹽花酒

#### 7) 藥露 : 보조치료제로 藥物을 蒸溜해서 製成한 藥體로 金銀花露 등(여름에 음료로?)

#### 8) 錠劑 또는 餅劑 : 藥物을 研末하여 가루로 만들어 혼합하여 만든 固體製劑,

#### 9) 條劑 : 細棒으로 瘡口에 插入

#### 10) 線劑 : 痔漏, 贅肉 제거시 瘻管또는 贅肉을 結紮하여 두면 萎縮되어 자연히 탈락함

#### 11) 浸洗劑 : “疏其汗孔 宣導外部”(聖濟總錄), 礬石湯

#### 12) 熏劑 : 水熏, 火熏

#### 13) 導藥 : 蜜煎導法 - 蜂蜜를 사용하여 長時間 煮하여 엿과 같이 만든 후 錠劑나

綿絲로 藥을 싸서 항문에 넣어 견고해진 糞便 등을 潤導

#### 14) 坐藥 : 陰道 내에 插入하여 부인의 白帶, 陰痒 등 질환 치료

\*\* 煎藥法 : 發表藥 - 武火로 급히,

補益藥 - 文火로 서서히 달인다.

芳香性藥物은 나중에 끓이고,

鑛物性藥物은 먼저 오래 끓임

\*\* 服藥法 : 骨髓에 病 -- 夕食後, 就寢前,

滋補藥, 强壯劑 -- 空腹時

四肢血脈에 病 --- 아침  
 胃腸에 刺戟이 있는 약 - 食後  
 胸膈上에 病 -- 食後(食遠服)  
 胸膈下에 病 -- 食前  
 瘡疾治療藥은 발작 2時間前  
 安神藥은 睡眠前

※ 服藥時 주의사항

- 瓜蒂를 복용 後 吐함이 안 그치면 麝香煎湯,
- 藜蘆를 복용 後 吐함이 안 그치면 葱白煎湯
- 下劑의 복용은 空腹時

4. 處方의 命名 (根據에 따라 : 藥物, 效能, 主治病症, 用法, 出典, 創方者, 合方, 加味등에 따라 命名)

1) 構成藥物을 근거로 命名

- 藥物의 用量比로 근거한 경우 : 六一散(滑石:甘草=6:1)
- 特殊약물을 근거 : 二陳湯(半夏, 陳皮)
- 藥物數를 근거로 한 경우 : 六味地黃元, 五苓散, 六君子湯, 四物湯

2) 效能을 근거로 명명

- 主效能을 중심 : 理中湯, 清暑益氣湯, 生脈散, 補中益氣湯, 舉元煎, 潤血飲, 滋陰降火湯  
定喘湯, 安胎飲, 達生散, 平胃散, 洗肝明目湯, 溫經湯
- 主藥과 효능 중심 : 附子裏中湯, 鹿茸大補湯, 星香正氣散, 烏藥順氣散...
- 효능을 비유하여 명명 : 失笑散, 起枕散, 佛手散, 不換金正氣散, 逍遙散, 白虎湯...

3) 主治病證을 근거로 명명 : 五淋散, 五積散, 三氣飲, 六鬱湯, 內消散

4) 用法을 근거로 명명 : 冷附湯, 四磨散, 鷄鳴散, 吹喉散

5) 出典, 創方者를 근거로 명명 : 金匱腎氣丸, 錢氏白朮散, 陶氏平胃散

6) 合方을 중심으로 명명 : 建理湯, 柴平湯, 平陳湯, 胃苓湯, 君苓湯, 柴胡四物湯

7) 加味를 중심으로 명명 : 加味大補湯, 加味歸脾湯, 加味平胃散

▣ 方劑學史 주요사항 정리

- 歷代 醫書籍 중에서 최초의 方劑學 서적은? <漢書藝文志>
- <內經> : 최초의 方劑學 基礎理論 제시 - 13首의 方劑가 기재되어 있음
- 漢代 張仲景 : <傷寒雜病論> 최초로 辨證論治한 經典著書
- 南北北시대 : <劉涓子鬼遺方> 현존하는 최초의 外科 專門書(晉末에 劉涓子가 撰하고 南齊의 龔慶宣이 정리함)  
徐之才 -<藥對>, 약물분류법인 '十種' 창조 cf) '十劑說' : 唐 陳藏器<本草拾遺>, 宋 <聖濟經>
- 宋 <太平聖惠方> : 중국 歷史上 국가에서 쓴 第一 方書  
<太平惠民和劑局方> : 최초의 既成藥典, 四物湯, 四君子湯, 逍遙散, 紫雪丹, 至寶丹 등 수록  
錢乙 -<小兒藥證直訣> 최초의 兒科 專門書
- 金 張元素 : 古方에 집착하지 않고 장점을 흡수하여 新方 창방 <臟腑標本藥式><醫學啓源>...
- 金 李杲 : 脾胃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론체계 형성, 益氣升陽說, 甘溫除熱法, 補中益氣湯  
<內外傷辨惑論>, <脾胃論>, <蘭室秘藏>
- 明 朱橚 <普濟方> 역사상 最大의 方書
- 明 吳崑 <醫方考>
- 明 張介賓 : <景岳全書> 方劑를 功用的 면에서 분류 - 新方八陳, 古方八陳
- 明 陳實功 : <外科正宗>
- 清 汪昂 : <醫方集解>, <湯頭歌訣>, <本草備要>

# 本草

## 제2절 氣味論

### 1. 四氣와五味

#### 1) 四氣(四性) (藥性 - 溫熱凉寒)

四氣란 陰陽에 입각한 藥性的 分類體系로 人體에 影響을 미치는 生理活動度를 대별하여 4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1) 溫藥 : 萬物始生之氣인 春에 응하여 發育을 爲主

(2) 熱藥 : 萬物繁榮之氣인 夏에 응하여 暢達을 爲主

(3) 凉藥 : 萬物收斂凋落之氣인 秋에 응하여 肅清을 爲主

(4) 寒藥 : 萬物沈藏蟄居之氣인 冬에 응하여 殺伐을 爲主

※ 藥의 香氣 : 芳香性 精油成分 含有 - 鎮心, 通竅, 理氣, 安神, 開胃, 止痛,  
興奮, 避臭, 殺蟲, 溫中, 造血作用

ex) 麝香, 樟腦, 安息香, 沈香

#### 2) 五味 (藥味) : 酸苦甘辛鹹(五能 : 收堅緩散軟)

- 藥物이 가지고 있는 酸苦甘辛鹹 5種의 味

- 藥物의 藥味는 五臟六腑와의 有機的 相關性 속에서 治愈와 豫防의 效果를 갖는다.

- 五味 中 辛甘味는 陽이라 하고 酸苦鹹味는 陰으로 區分

##### (1) 五味之用

① 酸味 : 能收能澀 - 斂汗, 斂氣, 止嗽, 止瀉, 澀精, 縮尿, 止帶, 止血, 生津

② 苦味 : 能瀉能燥能堅 - 降泄, 瀉下, 燥濕, 堅陰의 작용

③ 甘味 : 能補能和能緩 - 補虛藥은 甘味가 많다

④ 辛味 : 能散能潤能橫行 - 發散表邪, 行氣活血 등

⑤ 鹹味 : 能下 能軟堅, 柔軟作用 - 軟堅, 散結, 沈下, 治療癰癤瘤

※ 淡味 : 能利竅能滲泄 - 滲濕利水, 下行, 利竅, 通利小便

澀味 : 收斂固澀작용 - 龍骨, 訶子

##### ■ 五味之所傷

① 多食鹹則 脈凝泣而變色 (水剋火)

② 多食苦則 皮槁而毛拔 (火剋金)

③ 多食甘則 骨痛而髮落 (土剋水)

④ 多食辛則 筋急而爪枯 (金剋木)

⑤ 多食酸則 肉胝癢而脣揭 (木剋土)

##### ■ 五味所走 :

① 酸走筋 : 酸走筋, 筋病無多食酸

② 苦走骨 : 苦走骨, 骨病無多食苦

③ 甘走肉 : 甘走肉, 肉病無多食甘

④ 辛走氣 : 辛走氣, 氣病無多食辛

⑤ 鹹走血 : 鹹走血, 血病無多食鹹

『九鍼論 第七十八』

五走, 酸走筋, 辛走氣, 苦走血, 鹹走骨, 甘走肉, 是謂五走也.

『宣明五氣篇 第二十三』

五味所入: 酸入肝, 辛入肺, 苦入心, 鹹入腎, 甘入脾, 是謂“五入”.

五味所禁: 辛走氣, 氣病無多食辛; 鹹走血, 血病無多食鹹; 苦走骨, 骨病無多食苦; 甘走肉, 肉病無多食甘;

酸走筋，筋病無多食酸；是謂“五禁”，無令多食．

## 2. 升降浮沈

升降浮沈은 疾病에 대한 藥物의 治療作用을 말하는데, 升은 上升, 降은 下降, 浮는 上行發散, 沈은 下行泄利의 의미를 가진다.

1) 升·浮를 띤 藥物 - 陽性 : 위로 行하고 바깥으로 향하려는 性質

- 作用 : 發表, 催吐, 散寒, 祛風, 透疹, 通絡, 開竅

- 臨床용도 : 中氣下陷, 內臟下垂, 外感表證, 誤食毒物, 腹冷, 中風麻痺, 四肢疼痛

2) 沈·降을 띤 藥物 - 陰性 : 下行하고 안쪽으로 향하는 性質

- 作用 : 收斂하며 逆한 氣運을 내리고 滲利하며 泄瀉, 安神

- 臨床 : 肝陽上亢, 頭痛眩暈, 呃逆, 嘔吐, 水腫, 熱結便秘, 心神不安에 使用.

※雙向性 : 升浮하기도 하고 沈降하기도 함. 예) 川芎

### ■ 藥의 陰陽

陰	陽
(酸苦甘辛鹹) 味	氣 (溫涼寒熱)
味厚者 陰中之陰 → 泄(沈)	氣厚者 陽中之陽 → 發熱(浮)
味薄者 陰中之陽 → 通(升)	氣薄者 陽中之陰 → 發泄(降)
酸苦 (涌泄)	辛甘 (發散)
鹹 (涌泄)	淡 (滲泄)
重濁沈降	輕清升浮
陰味出下竅	陽氣出上竅
濁陰走五臟	清陽發腠理
濁陰歸六腑	清陽實四肢

◎ 味厚泄下는 大黃, 味薄通利는 木通(澤瀉), 氣薄發泄(泄利)는 麻黃, 氣厚發熱은 附子

※ 藥의 氣味厚薄 : 味薄者升而生 氣厚者浮而長 氣味平者化而成 氣薄者降而收 味厚者沈而藏

※ 氣味論의 觀察할 때 辛甘 溫熱性의 藥性은 대개 升浮하며, 苦酸鹹 寒涼性의 藥物은 沈降하는 作用이 있다.

※ 藥物의 升降浮沈作用은 配伍 혹은 炮製에 따라 轉化할 수 있다.

(炮製 : 酒製 - 升, 薑汁炒 - 散, 醋炒 - 收斂, 鹽水炒 - 下行, 蜜制 - 緩和)

## 3. 歸經 : “약물이 작용하는 經絡”

- 個別藥物이 일정한 臟腑와 經絡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범위

- 歸經理論 : 臟腑經絡의 理論과 藥물의 인체에 대한 반응을 종합하여 도출해냄

(약물의 작용과 五臟六腑, 十二經脈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결합시킴)

## 4. 補瀉

- 補 : 機體의 虧損을 滋補하고 機體功能을 증강, 疾病防禦作用을 키우고 虛弱證狀改善

- 瀉 : 邪氣를 除去, 機體功能을 調整, 機能亢進抑制, 病勢發展 制止

- 補瀉用藥規律 : 補不足 瀉有餘

### ■ 五臟의 五味補瀉法(苦欲補瀉)

※瀉

※補

①肝苦急	急食甘以緩之(甘草)	欲散	急食辛以散之(川芎)	以酸瀉之(赤芍藥)	以辛補之(細辛)
②心苦緩	急食酸以收之(五味子)	欲軟	急食鹹以軟之(芒硝)	以甘瀉之(甘草人參黃芪)	以鹹補之(澤瀉)
③脾苦濕	急食苦以燥之(白朮)	欲緩	急食甘以緩之(炙甘草)	以苦瀉之(黃連)	以甘補之(人參)
④肺苦氣逆	急食苦以泄之(訶子)	欲收	急食酸以收之(白芍藥)	以辛瀉之(桑白皮)	以酸補之(五味子)
⑤腎苦燥	急食辛以潤之(黃柏知母)	欲堅	急食苦以堅之(知母)	以鹹瀉之(澤瀉)	以苦補之(黃柏)

==>苦欲補瀉란? :

- : 五味와 五臟의 각기 고유한 性質을 파악하여 臟腑의 好惡에 따라 用藥하고자 함
- : 苦는 주로 臟腑機能 太過 상태로 實證, 欲은 주로 五臟機能이 부족 상태로 虛證으로 나타난다.
- ※五臟補瀉 : 脾는 中央으로 그대로이고 散↔收, 軟↔堅이 서로 바뀌고 이것이 그대로 ※補
- \*\*\*肝苦急 : 血燥苦急, 心苦緩 : 緩則散逸

5. 引經藥(引經報使藥) : 張潔古의 創案으로 李東垣, 龔廷賢, 李梴 등이 體系化함

- 한가지 藥物이 어느 특정한 臟腑와 經絡의 病變에 대하여 현저한 效能을 나타내는 것
- 이 學說에 의하여 藥物의 歸經性能이 변화되고 藥의 作用力이 직접 病所에 도달 가능
- =>발생의 원인을 찾아 직접적으로 치료 가능

(1)藥性を 이용한 引經藥 : 升浮, 沈降藥, 苦寒, 辛溫藥 등 藥性에 따라 구별

(2)表裏와 經絡關係 引經藥 : 表裏關係 兩經은 經氣가 相通하여 相同作用,

(3)手足經關係 引經藥 : 同名의 手經과 足經은 經氣相通하여 상호작용 가능

---> 引經藥의 용량은 過多量은 좋지 못하고 中等量이면 有效하다.

■이동원 <東垣十書>의 諸經으로의 引經藥(괄호안의 내용은 本草綱目)

手太陰經 : 桔梗 升麻 蒼朮 葛根(白芷 蔥白)

足太陰經 : 白芍藥 升麻 蒼朮 葛根

手太陽經 : 羌活 藁本 黃柏

足太陽經 : 黃柏 羌活

手陽明經 : 白芷 升麻 石膏

足陽明經 : 石膏 白芷 升麻 葛根

手少陰經 : 獨活 黃連 細辛

足少陰經 : 知母 獨活 桔梗 細辛(肉桂)

手少陽經 : 柴胡 連翹 地骨皮(上) 青皮(中) 附子(下)

足少陽經 : 青皮 柴胡

手厥陰經 : 柴胡 牡丹皮

足厥陰經 : 青皮 柴胡 川芎 吳茱萸

예) ★ 頭痛 引經藥 : 川芎은 모든 頭痛의 필수 引經藥, 太陽頭痛은 蔓荊子, 陽明頭痛은 白芷, 太陰頭痛(前頭痛)은 半夏, 少陰頭痛(두통이 齒에 까지 통증)은 細辛, 厥陰頭痛은 吳茱萸, 顛頂頭痛은 藁本

6. 藥物의 七情

한가지 혹은 두 가지 이상의 藥物을 配合했을 때의 藥物 相互間의 작용기전을 말한다.

1) 單行 : 한가지의 藥物로 疾病을 治療하는 것. ; (例) 獨蔘湯, 獨附湯

2) 相須 : 效能이 유사한 藥物을 配合했을 때 協同작용을 일으켜 원래의 功效 增加.

(君藥과 臣藥이 되어 서로 보조하여 효과 增強 - 둘다 主)

(例) 石膏 + 知母                      柴胡 + 黃芩                      知母 + 黃柏

人參 + 甘草                      當歸 + 川芎                      蓮子肉 + 山藥

3) 相使 : 두 藥物이 配伍될 때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主作用을 補助하는 것(主從관계형성).

(我之佐使)                      (例)                      黃芪(主) + 茯苓                      艾葉 + 香附子

黃芩(主) + 大黃                      前胡 + 半夏

4) 相惡 : 藥性を 合用시 상호 견제하여 藥物의 작용을 감소시키는 것.(人蔘惡萊菔子)

(奪我之能)                      (例)                      黃連 + 生薑                      防風 + 乾薑                      人參 + 萊菔子

白芍藥 + 石斛                      川芎 + 黃連                      厚朴 + 澤瀉

5) 相畏 : 藥物을 合用 時 한 藥물의 毒性이나 烈性反應을 다른 藥물이 抑制, 減少시킴

(受彼之制)                      (半夏畏生薑-半夏의 입장)(人蔘畏五靈脂)

(例)                      半夏 + 生薑                      細辛 + 滑石                      麥門冬 + 苦蔘

6) 相殺(쇄) : 한 藥物이 다른 藥物의 毒性을 없애는 것.(生薑殺半夏-생강의 입장)

(制彼之毒)                      (例)                      防風 + 附子                      白芷 + 石雄黃                      石葦 + 丹砂

7) 相反 : 藥物을 合用 後 인체에 강렬한 毒性반응이나 副作用을 일으키는 것.

(例)                      地黃 + 萊菔子                      胡黃連 + 玄參                      甘草 + 大戟, 甘遂

※ 藥性이 강해지는 경우 : 相須 相使

藥性이 약해지는 경우 : 相惡

毒性이 약해지는 경우 : 相畏 相殺(쇄)

毒性이 강해지는 경우 : 相反

## 7. 藥物의 禁忌

1) 證候禁忌 - 病情에 따른 적절한 變證과 藥物選擇

2) 配伍禁忌

(1) 十八反 - 烏頭 反 半夏, 瓜蒌, 貝母, 白斂(혹 白芨 포함)

甘草 反 大戟, 芫花, 甘遂, 海藻

藜蘆 反 五參(人參, 丹參, 玄參, 沙參, 苦參), 細辛, 芍藥

(2) 十九畏 - 硫黃畏朴硝, 水銀畏砒霜, 狼毒畏密陀僧, 巴豆畏牽牛, 丁香畏鬱金,

牙硝畏三稜, 川烏·草烏畏犀角, 人參畏五靈脂, 肉桂畏赤石脂

3) 妊娠用藥禁忌

4) 服藥時 飲食禁忌

屬生冷, 粘膩, 腥臭 등 不易消化之飲食, 特秀 刺戟性 飲食을 忌하므로

消化不良, 胃腸刺戟, 혹 助熱, 助升散 등의 副作用을 防止한다.

## 8. 六陳八新說

1) 六陳藥 : 시간이 경과할수록 藥의 品質이 좋아지는 것.

(例) 吳茱萸 陳皮(橘皮) 半夏 枳實 麻黃 狼毒

2) 八新藥 : 藥材를 채집하여 빠른 시간 내에 新鮮한 것을 사용하면 좋은 것.

(例) 蘇葉 薄荷葉 菊花 桃花 赤小豆 澤蘭 槐花 款冬花

※ 약물의 採集 貯藏 ① 根, 根莖類 : 休眠시기(늦가을, 겨울) ---저장전 처리(건조온도) 30~60 ° C

② 樹皮, 根皮 : 4,5월이나 봄 ----- "

③ 果實, 種子 : 未成熟時 採取(靑皮, 梔子, 枳實), 그 외는 성숙시 채집

- 花葉, 全草類와 휘발성물질 油脂등이 들어 있는 것 : 20 ~ 30 ° C

- 低溫貯藏 : 가장 이상적인 저장법, -5 ° C에서 저장

- 經驗저장 : ex) 澤瀉와 牡丹皮

※陽乾法(조직견실한 약물) 陰乾法(芳香性, 葉, 花, 草類),

火乾法(人工加溫乾燥) 蒸乾法 및 湯浸法(전분이 많은 根莖類)

## 9. 有毒藥과 無毒藥

1) 概念 : 毒이란, 氣味之偏性이다.(藥以治病, 因毒爲能, 所謂毒者, 以氣味之有偏也

...藥餌之屬是也, 所以去人之邪氣...)

有毒한 약물은 주로 急性질환에 사용함, 無毒한 약물은 주로 慢性疾患에 사용.

2) 分類 : 「神農本草經」에 보면 365種 藥物을

上品(無毒, 多服久服), 中品(無毒有毒, 斟酌其宜), 下品(多毒 不可久服)으로 분류함

3) 藥物毒性에 影響을 미치는 要素

① 藥物의 品種

② 炮製 ㄱ 炮製후 毒性減 - 半夏, 甘遂

ㄴ 炮製후 毒性增 - 雄黃

③ 配伍 ㄱ 毒性減(相畏, 相殺) - 甘草와 附子, 大黃과 巴豆

ㄴ 毒性增 - 十八反

④ 劑型 ⑤ 煎法 ⑥ 服法 ⑦ 體質

10. 藥의 用量 : 藥性이 和平, 無毒한 약물은 많이 사용 / 藥性이 峻烈, 有毒한 약물은 적게 사용

花, 葉類의 質이 가벼운 약물은 用量을 적게 / 鑛物, 貝殼類의 質重하고 無毒한 약물은 用量을 많이

湯劑에 들어가는 약물은 丸散劑에 비해 많이 사용  
重病, 急性病에는 많이 사용, 慢性病에는 적게 사용  
10세 이상은 성인과 비슷하게, 5~6세는 성인의 절반,  
嬰兒는 小量을 여러 차례 복용하면서 성인의 3분의 1의 量 정도로 함

### 제 3절 修 治

1. 概括 : - 韓方의 傳統製藥技術 - 法製, 炮製, 炮炙 修事 등으로도 불림  
- 韓藥의 修治는 韓方理論에 근거하여 약재를 가공 처리함으로써 藥材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製藥技術의 일종이다.

#### 2. 修治(炮製)의 目的

- 1) 藥物의 毒性 副作用의 低下 및 除去.(草烏 - 甘草, 黑豆로 찌면 毒性감소)
- 2) 藥性을 變化시키거나 緩和.(麻黃을 生用하면 辛散解表, 蜜炙하면 潤肺止咳작용이 强)
- 3) 治療效果 增大.
- 4) 藥物의 作用部位의 變化 및 增大.
- 5) 調劑와 製劑의 容易
- 6) 藥物의 清潔維持 및 貯藏 容易
- 7) 服用에 편리

#### 3. 洗淨과 加工

일반적으로 藥物을 切制, 修治, 調劑 혹은 製劑 전에 먼저 일정한 藥用部位를 취하고 非藥用部位와 雜質을 버려서 藥物의 사용목적에 맞게 하는 것.

##### 1) 雜質을 제거하는 법

- ① 挑選 : 雜質 및 곰팡이의 除去 - 手工으로 하거나 체로 거른다.
- ② 篩選 : 藥物에 포함된 雜質과 性狀의 大小不同을 이용하여 여러 크기의 체나 그물로써 藥物 중의 沙石, 雜質 등을 除去하는 것.
- ③ 風選 : 藥物과 雜質의 무게가 다른 것을 이용하여 바람의 힘을 빌어 雜質을 제거.
- ④ 洗漂 : 藥物을 水洗하거나 빨아서 雜質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 4. 飲片 切制 : 물로 軟하게 한 후 切制 하는 修治과정

- 목적 : ①湯劑에 넣기 쉽다 - 표면적 증가  
②修治하기 쉽다  
③製劑하기 쉽다.  
④調劑와 저장하기 쉽다. ⑤감별하기 쉽다. - 내부조직 특성 드러남

##### 1) 飲片切制의 方法

切制方法에는 切, 鎊, 포, 좌, 劈 등이 있다.

- ① 切 : 飲片을 만드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방법
- ② 방(鎊) : 서각(犀角)과 같은 동물(動物)각질(角質)류(類)의 약재에 응용
- ③ 포(刨) : 檀香, 松節 등과 같은 木質類의 藥材는 이 法으로 切制한다.  
藥材를 固定하여 刨刀로 깎아서 薄片으로 만들면 된다.
- ④ 좌(剉) : 藥材 중에 慣例적으로 粉末로 하는 것으로 양이 적어서 準備하지않고 處方에 따라 가공하는 것이 있는데 水牛角, 羚羊角 등이다.
- ⑤ 벽(劈) : 도끼류의 工具를 利用하여 動物骨格類의 藥材나 木質類의 藥材를 劈하여 塊나 厚片으로 만드는 方法이다. 降香, 松節, 虎骨 등에 利用된다.

#### 5. 韓藥修治의 常用輔料

##### 1) 液體輔料

- ①술(酒) ②食醋 ③蜂蜜 ④生薑汁 ⑤甘草汁 ⑥黑豆汁 ⑦米泔水
- ⑧食鹽水 ⑨膽汁 ⑩其他類(食用油, 羊脂油, 鱉血 등)



2) 固體輔料 ①쌀 ②麥麩 ③礬砂 ④豆腐 ⑤ 鱉(土=伏龍肝) ⑥蛤粉 ⑦滑石粉 ⑧河沙

## 6. 炒 法 : 清炒法과 加輔料炒法

### 1) 清炒法

- 輔料을 加하지 않고 炒하는 法이다. 炒黃, 炒焦, 炒炭의 3가지 方法이 있다.
- 目的 : ①治療效果증가 ②止血作用증가 ③ 毒性을 減少하거나 없앴.
- ④性能을 緩和하거나 改變 ⑤製劑와 貯藏에 편리.

※ 韓藥炮炙에 대한 최초의 전문서적은?

<雷公炮炙論?>

### 2) 輔料을 加하여 炒하는 법

- 輔料을 容器에 넣고 加熱하여 一定한 程度로 되면 藥物을 넣고 함께 炒하는 方法
- 目的 : ①輔料는 傳熱作用을 媒介하므로 藥物이 熱을 均等하게 받도록 한다.
- ②炒한 後에 質이 성기어진다.
- ③毒性減少 ④藥性 緩和 ⑤治療效果增加
- 種類 : 麩炒, 米炒, 土炒, 砂炒, 蛤粉炒, 滑石粉炒 等.

## 7. 炙 法

- 方法 : 一定量의 液體輔料와 함께 炒함으로써 輔料가 藥物組織 內에 스며들게 하는 方法.
- 目的 : 炙한 後에는 性味, 功效, 作用, 歸經 및 理化學的 性質이 모두 약간의 變化가 생길 수 있다.
- ① 解毒, 偏性的 抑制 ② 治療效果의 增加
- ③ 有效成分의 抽出에 容易 ④ 矯味矯臭
- 種類 : 酒炙, 醋炙, 鹽炙, 薑炙, 蜜炙, 油炙 等.

※ 炙法과 加輔料炒法의 차이 :

- 加輔料炒法은 溫度는 비교적 높은 반면 時間이 짧음(輔料가 固體)
- 炙法은 비교적 溫度가 낮은 반면 時間이 약간 길다.(輔料가 液體)

## 8. 煨 法

- 方法 : 藥物을 직접 爐火나 불에 건디는 용기 內에서 煨燒하는 方法.
- 煨하여 빨갛게 되면 식기 전에 일정한 液體輔料 中에 넣는 ‘淬’가 있다.
- 目的 : 藥物을 高溫(300-700℃)으로 煨燒하여
- ①원래의 性狀을 바꾸어 質이 성기어져서 粉碎와 煎湯이 쉽게 한다.
- ②理化學的 性質을 변화시켜 副作用을 減少시키거나 없애고, 治療效果를 높인다.
- 種類 : 明煨法, 煨淬法, 悶煨法(密閉煨法) 등

## 9. 蒸 煮 燂 法

대부분의 藥物의 修治에는 물과 불을 사용하지만, 藥物 中에는 輔料와 함께 修治하지 않아도 藥物의 生熟으로써 그 性能이 變化되어 臨床目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다.

- 1) 蒸法 : 藥물을 깨끗이 한 후 輔料(술, 식초 등)를 加하거나, 加하지 않고(清蒸) 容器에 넣고 찌서 일정한 程度로 만드는 方法을 ‘蒸法’이라고 한다.
- 2) 煮法 : 藥物에 輔料를 加하거나, 輔料를 加하지 않은 채로 容器에 넣어서 (固體輔料는 우선 먼저 빨아야 함) 적당량의 물을 부어서 함께 삶는 방법  
예) 芫花는 醋煮, 烏頭는 두부로 삶는다
- 3) 燂法(水燙) : 藥物을 끓는 물에 넣고 단시간 동안 삶은 다음 꺼내어 種皮를 分離하는 方法.

## 10. 複 制 法

- 方法 : 잘 씻은 藥物에 한 種類나 여러 種類의 輔料를 넣고 정해진 순서대로 반복하여 修治하는 方法.

## 11. 醱酵.發芽法

- 1) 醱酵法 : 일정한 온도와 습도 下에서 누룩이나 효소의 분해작용을 이용하여 약물을 發泡시키거나 生衣로 만드는 방법으로 새로운 치료효과를 얻기 위해 이용한다.(온도 30~37℃, 상대습도 70~80% 적당)
- 2) 發芽法(藥法) : 완전히 익은 과실이나 종자를 일정한 온도와 습도 下에서 싹이 나게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다.(濕潤하게 유지하면서 18~25℃의 온도에서 약 3일)

## 12. 其他 制法

- 1) 烘焙法 : 약물을 약한 불로 간접 혹은 직접 가열하여 충분히 건조시키는 것.
- 2) 煨 法 : 약물을 축축한 것으로 싸서 가열된 滑石粉 중에 넣거나, 또는 직접 가열된 밀기울 중에 넣거나, 약물을 여러 겹의 종이로 싸서 가열하는 방법 고대의 炮法에 해당한다.  
ex. 生薑, 附子, 訶子
- 3) 制霜法 : 약물을 去油하여 粉末로 하거나 작은 結晶으로 만드는 方法.  
ex. 巴豆霜, 西瓜霜(수박)
- 4) 提淨法 : 주로 鑛物藥을 溶解, 濾過, 再結晶處理하여 雜質을 제거하는 방법.
- 5) 水飛法 : 물에 녹지 않는 鑛物藥을 細末이 물에 뜨는 성질을 이용하여 물 중에 현탁한 부분을 분리시켜 채취하는 방법.(朱砂, 滑石)
- 6) 乾餾法 : 약물을 용기 內에서 불로 가열하여 汁液을 내는 방법.  
일반적으로 120-450℃ 정도의 온도에서 하며, 抗알레르기, 抗真菌作用, 鎮驚의 효능이 있다. ex. 蛋黃油, 竹瀝油, 豆油

동의M스쿨

■ 本草 效能別 정리표

解表藥	發散風寒藥	麻黃 桂枝 紫蘇葉 荊芥 羌活 白芷 防風 藁本 辛夷 細辛 生薑 香薷 葱白 檉柳 蒼耳子
	發散風熱藥	薄荷 牛蒡子 桑葉 菊花 葛根 柴胡 升麻 蔓荊子 淡豆豉 蟬蛻 浮萍 木賊
清熱藥	清熱瀉火藥	石膏 知母 蘆根 天花粉 竹葉 梔子 夏枯草 淡竹葉 寒水石 鴨跖草 穀精草 密蒙花 青葙子 槐角
	清熱燥濕藥	黃芩 黃連 黃柏 龍膽草 苦參 白鮮皮 大豆黃卷
	清熱涼血藥	犀角 鮮地黃 生地黃 玄參 牡丹皮 赤芍藥 紫草
	清熱解毒藥	金銀花 連翹 蒲公英 紫花地丁 大青葉 板藍根 青黛 牛黃 蚤休 半邊蓮 土茯苓 魚腥草 射干 山豆根 馬勃 馬齒莧 白頭翁 秦皮 鴉膽子 敗醬草 白花蛇舌草 熊膽 白蘞 漏蘆 山慈姑 綠豆 翻白草 萎陵菜 野菊花 忍冬藤
	清虛熱藥	青蒿 白薇 地骨皮 銀柴胡 胡黃連
	攻下藥	大黃 芒硝 蘆薈
瀉下藥	潤下藥	火麻仁 郁李仁
	峻下逐水藥	甘遂 大戟 芫花 牽牛子 商陸 巴豆 續隨子
祛風濕藥	祛風濕止痺痛藥	獨活 威靈仙 防己 秦艽 海桐皮 草烏 蠶沙 菝葜 馬錢子
	舒筋活絡藥	木瓜 絡石藤 桑枝 白花蛇 豨薟草 徐長卿 絲瓜絡 烏梢蛇 臭梧桐 海風藤
	祛風濕強筋骨藥	五加皮 虎骨 槲寄生 桑寄生
芳香化濕藥		蒼朮 厚朴 廣藿香 砂仁 白豆蔻 草豆蔻 草果 佩蘭
利水滲濕藥	利水退腫藥	茯苓 赤茯苓 茯神 茯苓皮 猪苓 澤瀉 薏苡仁 冬瓜皮 赤小豆 蠼蛄 玉米鬚 澤漆
	利尿通淋藥	車前子 木通 滑石 通草 海金沙 石韋 萆薢 地膚子 篇蓄 瞿麥 冬葵子 燈心草 三白草
	利濕退黃藥	茵陳胡 金錢草
溫裏藥		附子 川烏頭 乾薑 肉桂 吳茱萸 蜀椒 萆撥 萆澄茄 丁香 高良薑 小茴香 胡椒
理氣藥		陳皮 青皮 枳實 枳殼 木香 香附子 烏藥 沉香 川楝子 荔枝核 青木香 薤白 檀香 柿蒂 玫瑰花 大腹皮 土木香 甘松香
消食藥		山楂 神麴 麥芽 穀芽 萊菔子 鷄內金
驅蟲藥		使君子 苦楝皮 檳榔 雷丸 鶴蝨 榧子 蕪荑 貫衆
止血藥	收斂止血藥	仙鶴草 白及 棕櫚皮 藕節
	涼血止血藥	大蓴 小蓴 地榆 槐花 側柏葉 苧麻根 白茅根 羊蹄根
	化瘀止血藥	三七根 蒲黃 茜草根 花蕊石
	溫經止血藥	艾葉 伏龍肝
活血祛瘀藥		川芎 乳香 沒藥 玄胡索 鬱金 薑黃 莪朮 三棱 丹參 虎杖根 益母草 桃仁 紅花 五靈脂 牛膝 穿山甲 蟻蟲 水蛭 虻蟲 澤蘭 凌霄花 自然銅 王不留行 劉寄奴 蘇木 乾漆 皂角刺 血竭 馬鞭草 芫薺子 卷柏 鷄血藤
化痰止咳平喘藥	溫化寒痰藥	半夏 天南星 白附子 白芥子 皂莢 旋覆花 白前
	清化熱痰藥	前胡 桔梗 瓜蒌 瓜蒌仁 瓜蒌皮 川貝母 浙貝母 天竺黃 竹茹 竹瀝 海浮石 文蛤 青礞石 海藻 昆布 胖大海 瓦楞子 枇杷葉 冬瓜子
	止咳平喘藥	杏仁 百部根 紫菀 款冬花 蘇子 桑白皮 葶藶子 馬兜鈴 白果
安神藥		朱砂 磁石 龍骨 琥珀 酸棗仁 柏子仁 遠志 合歡皮 靈芝 夜交藤
平肝藥	平肝息風藥	羚羊角 釣鈎藤 天麻 白僵蠶 全蝎 蜈蚣 蚯蚓 決明子
	平肝潛陽藥	石決明 牡蠣 珍珠 珍珠母 玳瑁 代赭石 白蒺藜
開竅藥		麝香 冰片 石菖蒲 蘇合香 安息香 蟾酥 樟腦
補益藥	補氣藥	人蔘 黨參 黃芪 白朮 山藥 白扁豆 甘草 大棗 蜂蜜
	補陽藥	鹿茸 鹿角 鹿角膠 鹿角霜 巴戟天 肉苁蓉 仙茅 淫陽藿 胡蘆巴 杜仲 續斷 補骨脂 狗脊 益智仁 骨碎補 冬蟲夏草 蛤蚧 胡桃肉 紫何車 菟絲子 沙苑子 鎖陽 韭子 陽起石 海狗腎 海馬 蛇床子
	補血藥	當歸 熟地黃 白芍藥 何首烏 阿膠 龍眼肉
	補陰藥	沙參 麥門冬 天門冬 石斛 玉竹 黃精 百合 枸杞子 桑椹子 旱蓮草 女貞子 龜板 鱉甲 黑芝麻 楮實子
收澀藥	止汗藥	浮小麥 麻黃根 糯稻根
	止瀉藥	訶子 肉豆蔻 赤石脂 烏梅 罌粟殼 禹餘糧 石榴皮 椿皮 止血 五倍子
	澀精縮尿止帶藥	五味子 蓮子肉 芡實 山茱萸 金櫻子 桑螵蛸 覆盆子 海螵蛸 白礬
湧吐藥		瓜蒂 常山 膽礬 藜蘆
外用藥		硫黃 砒石 雄黃 輕粉 鉛丹 爐甘石 硼砂甘 斑蝥 露蜂房 大風子 木槿皮

## 經絡

### 제1절 經絡의 概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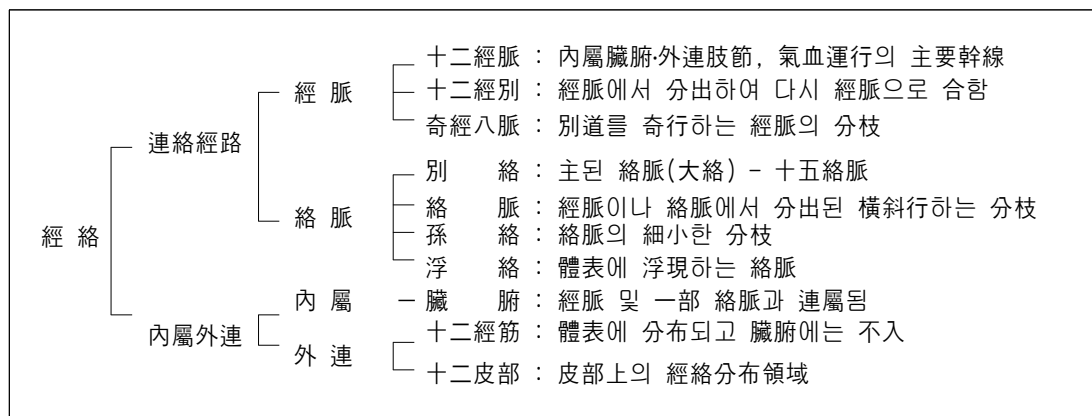
- 經絡이란? : 全身 氣血運行의 주요 通路이고 臟腑肢節을 연결하고 上下內外를 소통시키는 통로
  -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靈樞 本藏篇)  
(氣血을 運行시켜 인체 內部와 外部를 營養하고 筋骨을 濡養하며 關節活動을 圓滑하게 함)
  - 十二經脈者 此 五臟六腑之所以應天道.
  - 夫十二經脈者 人之所以生, 病之所以成, 人之所以治, 病之所以起 學之所始 工之所止 蠱之所易 上之所難也(靈樞 經別)
  - 經脈者 所以能決死生 處百病 調虛實 不可不通也(靈樞 經脈)
  - 夫十二經脈者 內屬于臟腑 外絡于肢節(靈樞 海論)
  - 經脈과 絡脈의 총칭. 經과 絡이라는 명사는 ‘脈’ 보다 비교적 늦은 시기에 출현함.
    - ┐ 經脈 : 氣血의 主幹, 縱行, 비교적 深層에 분포, 五臟六腑에 連結
    - └ 絡脈 : 氣血의 分枝, 橫斜行, 비교적 淺層에 분포, 經筋과 皮膚에 連系

### 2. 經絡학설의 주요내용

- ① 帛書 : - 馬王堆 漢墓(B.C. 168년경)에서 출토, 內經以前의 著作, 52病方, 彩色導引圖 등
  - <足臂十一脈灸經>, <陰陽十一脈灸經>의 수록
  - 脈名만 있고 經名이 없음, 經絡 현상을 血管活動으로 인식하여 脈이라 통칭
  - 穴位명칭이 없다, 11脈의 流注는 기록함.
  - 장부와의 관계도 확립 안됨, 脈사이의 관련성도 없음
- ② 黃帝內經 : 十二經脈(160개 穴位 명칭), 十二經別, 別絡, 經筋, 皮部 등의 내용 기재, 奇經八脈에 대한 분산된 논술
- ③ 難經 : 奇經八脈이란 단어를 제시      ④ 秦 皇甫謐 : 鍼灸甲乙經 - 349개 穴名이 기재됨
- ⑤ 唐 甄權 : 고대의 明堂圖를 수정
- ⑥ 唐 孫思邈 : <千金要方>에서 經絡의 經路를 色을 칠하여 표시
- ⑦ 宋 王維一 : 銅人을 주조, <銅人俞穴鍼灸圖經> - 354 穴名
- ⑧ 宋 王執中 : <鍼灸資生經> 359穴      ⑨ 元 滑壽 : <十四經發揮>
- ⑩ 明 李時珍 : <奇經八脈考>      ⑪ 明 楊繼洲 : <鍼灸大成> 359 穴
- ⑫ 清 姚蘭 : <本草分經> ->分經에 대한 用藥 重視
- ⑬ 清 <醫宗金鑑><鍼灸봉원> 361穴

### 제2절 經絡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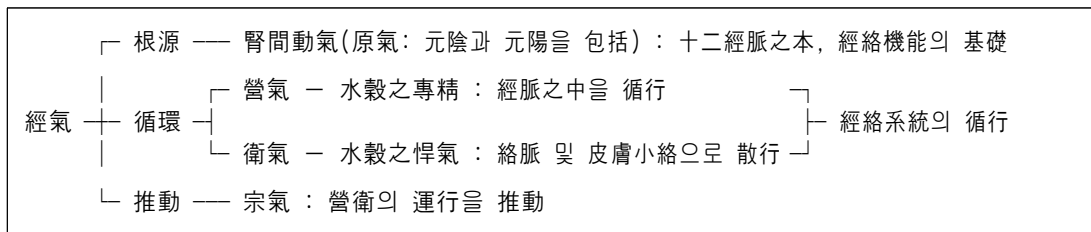
1. 經絡系統의 구성 : 經脈, 絡脈, 內로 臟腑에 속하는 부분, 外로 體表上으로 連하는 부분 등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표] 經絡의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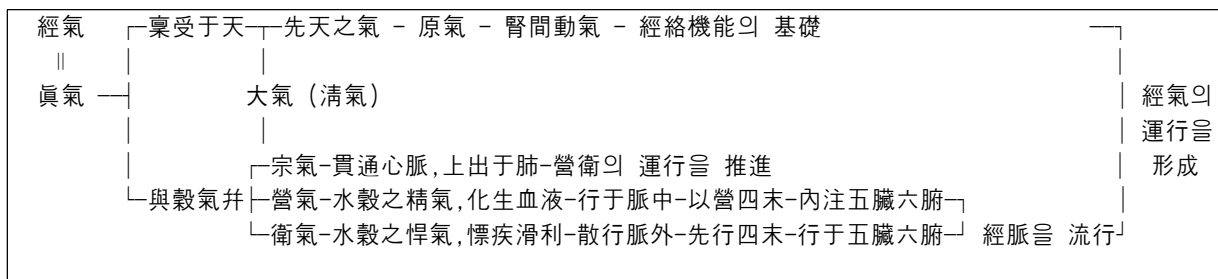
## 2. 經氣의 構成

營氣와 衛氣는 經絡을 따라 全身을 순행하며, 宗氣는 經絡이 氣血을 운행하게 하는 추진에너지이고, 原氣는 經絡이 기능하고 활동하는 基礎가 된다.



[經氣의 內容과 作用]

## 3. 經氣의 意義(運行): 經氣의 範圍는 營氣, 衛氣, 宗氣 및 原氣를 包括.



[經氣의 意義]

### 제3절 經絡의 生理機能

#### 1. 表裏上下 疏通, 臟腑 器官 연계 작용(罔絡周身, 聯通整體):

- ° 臟腑와 肢節 連結: 夫十二經脈者 內屬于腑臟 外絡于肢節(靈樞 海論)
- ° 臟腑와 五官九竅의 연결
- ° 臟腑와 臟腑 연결: 表裏관계에 의한 屬絡, 순행상 연결,  
경별에 의한 연결(正經의 부족 보충)
- ° 經脈과 經脈 연결: 表裏관계에 의한 연결, 奇經八脈에 의한 연결, 特定經穴에 의한 연계  
(ex. 大椎-三陽脈과 督脈)

#### 2. 運輸調節작용(運行氣血, 調和陰陽):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 濡筋骨 利關節者也(靈樞 本藏篇)

#### 3. 感應傳導와 虛實調整작용: 침구 및 기타 자극을 전도, “經絡感傳현상” - 酸.麻.重.脹 즉 得氣 또는 氣至 현상은 經絡의 感應傳導작용의 表現

#### 4. 反應작용(抗禦病邪, 反映病症): 인체 疾病發生에 대한 이상 表現(反應點, 壓痛點, 過敏點)

#### 5. 機能活動의 平衡維持 및 調節: 經絡을 通하여 人體機能活動의 相對的 平衡狀態 유지

### ♣ 經絡의 3대 作用

- ① 生理的: 運輸작용 - 氣血을 運行시키고 身體를 滋養하는 作用
- ② 病理的: 反應작용 - 인체의 異常을 反映하는 作用
- ③ 治療的: 傳導작용 - 侵襲病邪나 鍼灸刺戟 등을 傳導하는 作用

### 제4절 經絡學說의 운용

#### 1. 生理的 운용:

- ① 聯系整體의 작용 - 內外表裏上下左右 소통, 五臟六腑 五官九竅 百骸 皮肉등을 연계하여 有機整體 형성
- ② 氣血운행: 臟腑組織을 濡養
- ③ 防禦作用: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  
衛氣和則分肉解利 皮膚調柔 腠理緻密矣(靈樞 本藏篇)

④人體와 自然과의 相應關係維持

2. 病理的 運용 : 病邪傳達, 病變反映의 通路

①反應系統의 作用

- 五臟有疾也 應出十二原(靈樞 九鍼十二原편) cf) 原穴

- 肺心有邪 其氣留於兩肘 肝有邪 其氣流於兩腋 脾有邪 其氣留於兩髀(股) 腎有邪 其氣留於兩膕

②傳導系統의 作用: 傳變 또는 傳經 : 皮毛-孫脈-絡脈-經脈-五臟-腸胃

4. 治療的 運용 : 鍼灸뿐만 아니라 藥物 등 기타의 치료에도 經絡學說을 應用해야 有機的

整體觀念에 입각한 精確한 辨證論治가 가능

1) 鍼灸치료에 응용 :

- 循經取穴(自經을 취하여 치료)-分經辨證의 기초 위에서 질병의

所屬臟腑와 經絡病位를 精確하여 經脈循行의 逆順에 의거하여 치료,

예) 從陰引陽, 從陽引陰, 左病右治 右病左治(巨刺, 繆刺法), 原絡取穴, 俞募取穴 등

- 放血法 : 三稜鍼이용(刺絡療法=刺血療法)

2) 用藥 - 歸經이론 : 宋 寇宗奭의 <本草衍義>에 처음 등장 → 金元代에 발전함

“引經報使” 이론이 성립됨(cf. 君臣佐使이론)

예) 傷寒의 太陽病 : 太陽經 藥物인 麻黃, 桂枝이용

少陽病 : 少陽經 藥物인 柴胡

제5절 十二經脈

1. 十二經脈의 流走(始, 終點)

部位	穴名	經名	部位	穴名
→ → → 中焦 (中府)	→ → → ①手太陰 肺經	→ → → 手大指端 (少商)		
↑ ↑ 鼻防 (迎香)	<--- ②手陽明 大腸經	<--- 手次指端 (商陽)		
↑ ↑ 目下 (承泣)	→ → → ③足陽明 胃經	→ → → 足二趾端外側 (厲兌)		
↑ ↑ 胸腹3側線(大包)	<--- ④足太陰 脾經	<--- 足大趾內端 (隱白)		
↑ ⑭任脈 腋下 (極泉)	→ → → ⑤手少陰 心經	→ → → 手小指內端 (少衝)		
↑ (前) 耳前 (聽宮)	<--- ⑥手太陽 小腸經	<--- 手小指外端 (少澤)		
↑ ↑ 內眥 (睛明)	→ → → ⑦足太陽 膀胱經	→ → → 足小趾外端 (至陰)		
↑ ⑬督脈 胸腹2側線(俞府)	<--- ⑧足少陰 腎經	<--- 足掌心 (湧泉)		
↑ (後) 乳傍 (天池)	→ → → ⑨手厥陰 心包經	→ → → 手中指端 (中衝)		
↑ ↑ 眉梢 (絲竹空)	<--- ⑩手少陽 三焦經	<--- 手無名指端 (關衝)		
↑ ↑ 外眥 (瞳子膠)	→ → → ⑪足少陽 膽經	→ → → 足四趾端 (竅陰)		
← ← ← 脇部 (期門)	<--- ⑫足厥陰 肝經	<--- 足大趾外端 (大敦)		

2. 十二經脈의 是動病 및 所生病(醫家들의 해석이 不一致)

是動病	氣病(先病) 氣留而不行	本經의 병	在氣, 陽, 衛, 病在外	外因의 所致	經絡의 병
所生病	血病(後病) 血凝而不濡	他經의 병	在血, 陰, 營 病在于裏	內因의 所致	臟腑의 병
	難經	難經經釋	楊康侯	靈樞集註	十四經發揮

※ 所生病(문제를 풀 때만 참고할 것)

手陽明大腸經 - 是主津所生病者, 胃經 - 血, 小腸經 - 液, 膀胱經 - 筋  
心包經 - 脈, 三焦經 - 氣, 膽經 - 骨

※ 주요 장부의 所生病 (五行歸類의 순서에 三焦만 추가)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三焦 → 骨 液 血 津 筋 氣

◆ 十二經脈 流走

肺手太陰之脈	起於中焦 <sub>하야</sub> 下絡大腸 <sub>하고</sub> 還循胃口 <sub>하야</sub> 上膈屬肺 <sub>하고</sub> 從肺系橫出腋下 <sub>하야</sub> 下循膈內 <sub>하야</sub> 行少陰心主之前 <sub>하야</sub> 下肘中 <sub>하고</sub> 循臂內 上骨下廉 <sub>하야</sub> 入寸口 上魚 <sub>하고</sub> 循魚際 <sub>하야</sub> 出大指之端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腕後直出次指內廉 <sub>하야</sub> 出其端 <sub>이라</sub>
大腸手陽明之脈	起於大指次指之端 <sub>하야</sub> 循指上廉 <sub>하야</sub> 出合谷兩骨之間 <sub>하야</sub> 上入兩筋之中 <sub>하야</sub> 循臂上廉 <sub>하야</sub> 入肘外廉 <sub>하야</sub> 上膈外前廉 <sub>하야</sub> 上肩 <sub>하야</sub> 出髃骨之前廉 <sub>하야</sub> 上出於柱骨之會上 <sub>하야</sub> 下入缺盆 <sub>하야</sub> 絡肺 <sub>하고</sub> 下膈屬大腸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缺盆上頸 <sub>하야</sub> 貫頰 <sub>하야</sub> 入下齒中 <sub>하야</sub> 還出挾口 <sub>하야</sub> 交人中 <sub>하야</sub> 左之右 <sub>하고</sub> 右之左 <sub>하야</sub> 上挾鼻孔 <sub>이라</sub>
胃足陽明之脈	起於鼻(之)交頰中 <sub>하야</sub> 旁納太陽之脈 <sub>하야</sub> 下循鼻外 <sub>하야</sub> 入上齒中 <sub>하야</sub> 還出挾口環脣 <sub>하고</sub> 下交承漿 <sub>하고</sub> 却循頤後下廉 <sub>하야</sub> 出大迎 <sub>하야</sub> 循頰車 <sub>하야</sub> 上耳前 <sub>하야</sub> 過客主人 <sub>하야</sub> 循髮際 <sub>하야</sub> 至額顙 <sub>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大迎前下人迎 <sub>하야</sub> 循喉嚨 入缺盆 <sub>하야</sub> 下膈 <sub>하야</sub> 屬胃 <sub>하고</sub> 絡脾 <sub>라</sub> 其直者 <sub>는</sub> 從缺盆下乳內廉 <sub>하야</sub> 下挾臍 <sub>하야</sub> 入氣街中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起於胃口 <sub>하야</sub> 下循腹裏 <sub>하야</sub> 下至氣街中而合 <sub>하야</sub> 以下髀關 <sub>하야</sub> 抵伏兔 <sub>하야</sub> 下(入)膝膑中 <sub>하야</sub> 下循脛外廉 <sub>하야</sub> 下足跗 <sub>하야</sub> 入中指內間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下膝[廉]三寸而別 <sub>하야</sub> 下入中指外間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別跗上 <sub>하야</sub> 入大指間出其端 <sub>이라</sub>
脾足太陰之脈	起於大指之端 <sub>하야</sub> 循指內側白肉際 <sub>하야</sub> 過核骨後 <sub>하야</sub> 上內踝前廉 <sub>하야</sub> 上踰[膕]內 <sub>하야</sub> 循脛骨後 <sub>하야</sub> 交出厥陰之前 <sub>하야</sub> 上(循)膝股內前廉 <sub>하야</sub> 入腹 <sub>하야</sub> 屬脾 <sub>하고</sub> 絡胃 <sub>하야</sub> 上膈挾咽 <sub>하야</sub> 連舌本 <sub>하고</sub> 散舌下 <sub>라</sub> 其支者 <sub>는</sub> 復從胃 <sub>하야</sub> 別上膈 <sub>하야</sub> 注心中 <sub>이라</sub>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sub>하야</sub> 出屬心系 <sub>하야</sub> 下膈 絡小腸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心系 <sub>하야</sub> 上挾咽 <sub>하야</sub> 繫目系 <sub>라</sub> 其直者 <sub>는</sub> 復從心系却上肺 <sub>하야</sub> (下)出腋下 <sub>하야</sub> [下]循膈內後廉 <sub>하야</sub> 行太陰心主之後 <sub>하야</sub> 下肘內 <sub>하야</sub> 循臂內後廉 <sub>하야</sub> 抵掌後銳骨之端 <sub>하야</sub> 入掌內(後)廉 <sub>하야</sub> 循小指之內 <sub>하야</sub> 出其端 <sub>이라</sub>
小腸手太陽之脈	起於小指之端 <sub>하야</sub> 循手外側 <sub>하야</sub> 上腕 <sub>하야</sub> 出踝中 <sub>하야</sub> 直上循臂骨下廉 <sub>하야</sub> 出肘內側兩筋之間 <sub>하야</sub> 上循膈外後廉 <sub>하야</sub> 出肩解 <sub>하야</sub> 繞肩胛 <sub>하야</sub> 肩上 <sub>하야</sub> 入缺盆 <sub>하야</sub> 絡心 <sub>하고</sub> 循咽下膈抵胃 <sub>하야</sub> 屬小腸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缺盆循頸上頰 <sub>하야</sub> 至目銳眦 <sub>하야</sub> 却入耳中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別頰上頰 <sub>하야</sub> 抵鼻 <sub>하야</sub> 至目內眦 <sub>하야</sub> 斜絡於顙 <sub>이라</sub>
膀胱足太陽之脈	起於目內眦 <sub>하야</sub> 上額交巔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巔至耳上角 <sub>이라</sub> 其直者 <sub>는</sub> 從巔入絡腦 <sub>하야</sub> 還出別下項 <sub>하야</sub> 循肩膊內 <sub>하야</sub> 挾脊 <sub>하야</sub> 抵腰中 <sub>하야</sub> 入循膂 <sub>하야</sub> 絡腎 <sub>하고</sub> 屬膀胱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腰中下挾脊 <sub>하야</sub> 貫腎 <sub>하야</sub> 入臍中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體內左右 <sub>하야</sub> 別下貫胛 <sub>하야</sub> 挾脊內 <sub>하야</sub> 過髀樞循髀外 <sub>하야</sub> 從後廉下合臛中 <sub>하야</sub> 以下貫端內 <sub>하야</sub> 出外踝之後 <sub>하야</sub> 循京骨 <sub>하야</sub> 至小指外側 <sub>이라</sub>
腎足少陰之脈	起於小指之下 <sub>하야</sub> 邪走足心 <sub>하야</sub> 出於然谷之下 <sub>하야</sub> 循內踝之後 <sub>하야</sub> 別入跟中 <sub>하야</sub> 以上踰內 <sub>하야</sub> 出臛內廉 <sub>하야</sub> 上股內後廉 <sub>하야</sub> 貫脊 <sub>하야</sub> 屬腎 <sub>하고</sub> 絡膀胱 <sub>이라</sub> 其直者 <sub>는</sub> 從腎上貫肝膈 <sub>하야</sub> 入肺中 <sub>하야</sub> 循喉嚨 <sub>하야</sub> 挾舌本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肺出絡心 <sub>하야</sub> 注胸中 <sub>이라</sub>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於胸中 <sub>하야</sub> 出屬心包絡 <sub>하야</sub> 下膈 <sub>하야</sub> 歷絡三焦 <sub>라</sub> 其支者 <sub>는</sub> 循胸出脇 <sub>하야</sub> 下腋三寸 <sub>하야</sub> 上抵腋 <sub>하야</sub> 下循膈內 <sub>하야</sub> 行太陰少陰之間 <sub>하야</sub> 入肘中 <sub>하야</sub> 下臂 <sub>하야</sub> 行兩筋之間 <sub>하야</sub> 入掌中 <sub>하야</sub> 循中指出其端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別掌中 <sub>하야</sub> 循小指次指 <sub>하야</sub> 出其端 <sub>이라</sub>
三焦手少陽之脈	起於小指次指之端 <sub>하야</sub> 上出兩指之間 <sub>하야</sub> 循手表腕 <sub>하야</sub> 出臂外兩骨之間 <sub>하야</sub> 上貫肘 <sub>하야</sub> 循膈外 <sub>하야</sub> 上肩而交出足少陽之後 <sub>하야</sub> 入缺盆 <sub>하야</sub> 布臚中 <sub>하야</sub> 散絡心包 <sub>하야</sub> 下膈 <sub>하야</sub> 循屬三焦 <sub>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臚中上出缺盆 <sub>하야</sub> 上項 <sub>하야</sub> 繫耳後直上 <sub>하야</sub> 出耳上角 <sub>하야</sub> 以屈下頰至顙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耳後入耳中 <sub>하야</sub> 出走耳前 <sub>하야</sub> 過客主人前 <sub>하야</sub> 交頰 <sub>하야</sub> 至目銳眦 <sub>라</sub>
膽足少陽之脈	起於目銳眦 <sub>하야</sub> 上抵頭角 <sub>하야</sub> 下耳後 <sub>하야</sub> 循頸 <sub>하야</sub> 行手少陽之前 <sub>하야</sub> 至肩上 却交出手少陽之後 <sub>하야</sub> 入缺盆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耳後入耳中 <sub>하야</sub> 出走耳前 <sub>하야</sub> 至目銳眦後 <sub>라</sub> 其支者 <sub>는</sub> 別銳眦 <sub>하야</sub> 下大迎 <sub>하야</sub> 合於手少陽 <sub>하야</sub> 抵於頰 <sub>하야</sub> 下加頰車 <sub>하야</sub> 下頸 <sub>하야</sub> 合缺盆 <sub>하야</sub> 以下胸中 <sub>하야</sub> 貫膈 <sub>하야</sub> 絡肝 <sub>하고</sub> 屬膽 <sub>하야</sub> 循脇裏 <sub>하야</sub> 出氣街 <sub>하야</sub> 繞毛際 <sub>하야</sub> 橫入髀厭中 <sub>이라</sub> 其直者 <sub>는</sub> 從缺盆下腋 <sub>하야</sub> 循胸 <sub>하야</sub> 過季脇 <sub>하야</sub> 下合髀厭中 以下循髀陽 <sub>하야</sub> 出膝外廉 <sub>하야</sub> 下外輔骨之前 <sub>하야</sub> 直下抵絕骨之端 <sub>하야</sub> 下出外踝之前 <sub>하야</sub> 循足跗上 <sub>하야</sub> 入小指次指之間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別跗上 <sub>하야</sub> 入大指之間 <sub>하야</sub> 循大指岐骨內 <sub>하야</sub> 出其端 <sub>하야</sub> 還貫爪甲 <sub>하야</sub> 出三毛 <sub>라</sub>
肝足厥陰之脈	起於大指叢毛之際 <sub>하야</sub> 上循足跗上廉 <sub>하야</sub> 去內踝一寸 <sub>하야</sub> 上踝八寸 <sub>하야</sub> 交出太陰之後 <sub>하야</sub> 上膈內廉 <sub>하야</sub> 循股陰 <sub>하야</sub> 入毛中 <sub>하야</sub> 過陰器 <sub>하야</sub> 抵小腹 <sub>하야</sub> 挾胃屬肝 <sub>하야</sub> 絡膽 <sub>하고</sub> 上貫膈 <sub>하야</sub> 布脇肋 <sub>하야</sub> 循喉嚨之後 <sub>하야</sub> 上入頰頰 <sub>하야</sub> 連目系 <sub>하야</sub> 上出額 <sub>하야</sub> 與督脈會於巔 <sub>이라</sub> 其支者 <sub>는</sub> 從目系下頰裏 <sub>하야</sub> 環脣內 <sub>라</sub> 其支者 <sub>는</sub> 復從肝 <sub>하야</sub> 別貫膈 <sub>하야</sub> 上注肺 <sub>라</sub>

제6절 十二經別, 15絡脈, 奇經八脈, 十二經筋, 十二皮部

1. 12經別 : 經別은 깊게 흐르고 상하로 직행하는 경맥(經脈에서 分出하여 縱行하는 支脈)

cf) 淺層을 행하는 絡脈과 다름

① 機能 : - 十二經脈에서 別出한 別行의 正經

a. 十二經脈 表裏經의 연계關係를 強化(陰經經別은 陽經經別에 陷入됨)  
(內(深部)를 主管)

b. 頭面部 經脈의 重要性을 높인다(十二經脈과 頭面部 연계 강화)

. 十二經脈 中 頭面部에는 주로 六陽經이 순행하는데,

. 經別은 六陰經이 六陽經에 合하여져 頭面部로 순행하여 六合형성

. 經脈의 氣血이 모두 面部로 흐른다는 이론적 근거 → 面鍼, 鼻鍼의 근거

c. 十二經脈의 분포와 연계부위를 稠密케 한다

. 體表와 體內, 四肢와 軀幹의 向心性 연계 강화(四肢에서 出→體腔에 入)

. 足三陰三陽經과 心臟의 연결을 강화 : 向心性 순행

. 足正經의 經脈不足을 보충

. 12經脈의 분포범위(主治範圍)를 확대

d. 十二經脈의 치료범위 확대

. 肛門病治療時 膀胱經의 承筋, 承山 穴位 활용 → 足太陽經別이 肛門과 연계됨

② 循行특징 :

- ‘離入出合’의 六合 형성(陰依附陽하는 형식) : 十二經脈의 四肢部分을 따라

別出하여(離), 體腔深部로 들어가고(入), 다시 體表로 淺出(出)하여 頭面으로

上行하며 陰經의 經別은 陽經의 經別과 合하여져서 六陽經脈으로 分別注入됨(合)

- 四肢肘膝이상 부위에서 分出(淺→深→淺)

- 陽經은 同名의 陽經脈에 合하고,

陰經은 表裏關係의 陽經脈으로 合流하여 六合형성

2. 15 絡脈(別絡)

1) 15絡脈의 구성:

■ 세 가지 學說:

① 靈樞 經脈篇 : 十二經脈의 別絡 + 任脈, 督脈의 絡 + 脾의 大絡 (要 암기!!!)

② 難經 : 十二經脈의 別絡 + 陽絡(陽蹻脈의 絡) + 陰絡(陰蹻脈의 絡) + 脾之大絡

③ 醫門法律(喻昌) : 十二經脈의 別絡 + 奇經之大絡 + 胃之大絡 + 脾之大絡

■ 15絡脈의 名稱 :

手腕部에서 內側 : 列缺-內關-通里      足部에서 內側: 公孫-蠡溝-大鍾

手腕部에서 外側 : 偏歷-外關-支正      足部에서 外側: 豐隆-光明-飛揚

任脈之絡 - 鳩尾(尾翳), 督脈之絡 - 長強,

脾之大絡 - 大包, 胃之大絡 - 虛里

- 12 經脈에서 分出(手腕 혹은 足踝이상의 一位)하여 橫斜로 分支된 비교적 큰 絡脈

- 十二經脈의 別絡 : 表裏關係의 두 絡脈을 연결, 經脈循行路線의 부족을 보충

- 任脈, 督脈, 脾의 大絡 : 軀幹部에서 각각 前面, 後面, 側面에 분포하면서 氣血을 운반

- 脾의 大絡(大包): 腋窩(淵腋穴 下 三寸處, 腋下 6寸)에서 분출,

전신을 網羅하고 15絡脈을 통할(모든 血絡을 統屬함)

\*\*\*胃의 大絡(虛里) :

- 虛里는 心 부근에 있는 胃之大絡이며 宗氣가 안으로 入하는 곳(經脈中 宗氣의 集會處)

- 虛里를 통해 宗氣의 성쇠를 판단할 수 있다

- 虛里穴(左側 乳部下面에 분포, 肋間 4-5번 사이)



1. 按之應手 動而不緊 緩而不急 → 宗氣積於胸中(無病之證)

2. 其動微而不見 → 宗氣不及

3. 高動而應衣 → 太過(宗氣外泄之狀)

## 2) 別絡의 기능

- 十二經脈의 體表的 表裏關係를 強化(ex. 陰經의 絡脈 → 표리관계의 陽經)

- 전신의 絡脈을 통솔 - 인체 전후 측면의 연결 강화

(ex. 脾의 大絡은 胸脇에서 전신에 있는 經脈氣의 運行 推進)

- 全身濡養작용 : 氣血의 運行을 도와 전신에 영양을 공급

→ 別絡, 浮絡, 孫絡(絡之別者爲孫) 통과

## 3. 奇經八脈(독, 임, 충, 대, 음유, 양유, 음교, 양교맥)

- ‘奇’는 “異(12經脈과 서로 拘束制約하지 않고 別道奇行)” “不偶(表裏配合관계 없음)”의 뜻, 순행과 內臟에 연결되는 방식이 十二經脈과 구별됨으로 奇經이라 함

1) 정의 : 十二經脈이외의 별도로 奇行하는 經脈의 分支

2) 주요작용: ①十二經脈 사이의 關係를 密接하게 함

. 督脈 : 諸陽經을 統率, 任脈 : 諸陰經을 統率

. 陰維脈, 陽維脈 : 각각 陰經과 陽經을 組合

. 帶脈 : 腰腹部의 經脈을 約束

②十二經脈의 氣血조절 작용 - 호수(이시진 奇經八脈考), 溝渠(難經)

※奇經八脈은 氣血에 대하여 滲灌하고 溢蓄하는 調節作用을 한다

※奇經八脈은 十二經脈을 分流하고 組合시키며 主導하는 作用을 한다.

③奇恒之腑와 관계가 비교적 밀접(督脈 - 腦에 入, 督任衝脈 - 胞中에서 起始)

④기타 : 一部 臟腑와 밀접 - 肝, 腎등의 臟

女子胞(督任衝脈이 起始), 腦(督脈이 入), 髓등 奇恒之腑와 밀접

## 3) 奇經八脈의 主要機能과 循行

### ①督脈(長強 - 巔交)

- 순행 : 胞中 출발 → 會陰 下出 → 背面正中線 上行 → 軀, 腰, 項 → 腦에屬, 아울러 腎에 絡, 心을 貫

- 기능 . 陽脈之海 - 督總一身之陽經 → 陽經의 經氣 모두가 大椎에서 交會

. 督脈循行은 上額與足厥陰交于巔 入絡于腦 - 腦와 肝病이 督脈上에 表現됨

- 腦, 髓, 腎의 생리병리 반영(내생식기관과 연계. 貫脊屬腎)

. 人身의 元氣를 維係

- 起始部 : 小腹以下骨中央 또는 下極之俞(長強穴) 또는 胞中

: 胞中에서 下行하여 체표의 첫 번째 穴位로 알게 나온다는 의미임

### ②任脈(會陰 - 承漿)

- 순행 : 胞中 → 會陰下出 → 腹面正中線 → 陰阜, 腹部, 頸部 → 下脘 → 眼眶下

- 기능 . 陰脈之海(脊椎內에 한 갈래가 있음)

. 任主胞胎 - 月經조절, 胎兒妊育 - 婦女的 生養에 근본

(胞中에서 起始, 따라서 衝任脈 充盛하면 天癸 促進, 腎中精氣 旺盛)

. 腎과 연관(督脈은 腎과 通脈하고 任脈은 通督脈, 따라서 任脈은 腎과 相通함)

### ③衝脈(氣衝 - 幽門)

- 순행 : 胞中 → 會陰下出 - 鼠蹊部(氣衝)에서 腎經과 상행(胃經과도 이어짐) →

→ 胸中 散布 → 다시 上行 → 喉 → 口脣(氣衝 → 대퇴 → 臍中 → 內踝 → 발바닥)

- 기능 : ① 要衝, 要道 :

- 十二經脈 氣血을 잘 통하게 해준다는 의미(經脈之海 : 十二經脈之海)

- 十二經脈, 五臟六腑 氣血을 容納(五臟六腑之海, 血海)

② 血海 - 任脈과 더불어 生養의 근본을 포함 - 男子 生殖, 女子 月經 조절

※四海와 연관 : 氣血이 가장 크게 匯聚하는 곳

- 骨髓海(頭部), 氣海(胸部), 水穀海(上腹部), 血海(下腹部)

※督脈, 任脈, 衝脈은 一源而三岐

④帶脈(帶脈, 五樞, 維道穴 - 膽經)

- 순행 : 季肋(11.12肋骨)에서 출발하여 몸을 한바퀴 돌(소속혈 : 帶脈.五椎,維道-膽經)

- 기능 : 諸經을 約束(約束諸脈 不得妄行)

: 月事不和, 赤白帶下도 연관

⑤陰維脈(築賓-廉泉)

- 순행 : 小腿內側諸陰之交 → 下肢內側上行 → 腹部에서 脾經과 동행

→ 脇部에서 肝經과 상합 → 咽喉에서 任脈과 交

- 기능 : 維絡諸陰 : 手足三陰經과 任脈을 연락 → 裏面을 主(主裏屬營)

⑥陽維脈(金門-瘰癧)

- 순행 : 外踝下(金門) → 膽經과 병행 → 軀幹部 後外側 → 項後와 耳後 → 前額

- 기능 : 維絡諸陽 : 手足三陽經과 督脈을 維係聯絡(一身의 表를 주지) → 主表屬衛

⑦陰蹻脈(照海-睛明)

- 순행 : 內踝下(照海) → 腿股內側 → 陰部 → 鎖骨上窩 → 喉嚨 → 內眼角(目內眥)

→ 手足太陽經(小腸, 膀胱經), 陽蹻脈과 相會 → 腦

(“陰蹻者 足少陰之別脈”-奇經八脈考)

- 기능 : 眼瞼 開闔(陽氣盛即瞋目, 陰氣盛即瞑目) 主管(->一身之左右之陰을 주관)

下肢운동(肢節運動) 주관

⑧陽蹻脈(申脈-風池)

- 순행 : 外踝下(申脈) → 股外側 → 脇肋後外側 → 肩 → 口角 → 內眼角

→ 手足太陽經, 陰蹻脈과 交한 후 상행 → 髮際 → 風池 → 風府 → 腦로 入

- 기능 : 陰蹻脈과 동일(陽蹻主一身之左右之陽)

※陰陽蹻脈 : 主一身之動靜, 衛氣의 운행과 연관하여 眼睛 開闔(睡眠)에 관여

#### 4)奇經八脈의 순행상의 특징

①대부분 縱橫하며 인체의 좌우양측에 분포

②인체의 正中에 위치한 것도 있다(任脈, 督脈)

③軀幹部를 橫斜로 圍繞하는 것도 있다.(帶脈)

④體腔에 深入하여 內臟과 관계한 것도..(ex. 督脈)

⑤體表에만 분포(한 것도 있다.)

⑥臟腑와의 屬絡關係나 表裏配合關係는 없다

⑦帶脈 外에는 모두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다. 아울러 逆順交接하는 규율이 없다(如環無端的 순환개념 없음)

⑧奇恒之腑와 연속을 갖는다

⑨督脈, 任脈을 제외한 六脈은 本脈의 輸穴을 갖고 있지 않다

즉 十二經脈中에 부작하여 他經의 輸穴으로써 本脈의 俞穴을 구성한다

#### ♣奇經八脈의 起始部와 終止部, 그리고 病症

督脈 : 長強 - 龜交(28혈) - 脊強而折厥

- 諸陽之海

任脈 : 會陰 - 承漿(24혈) - 男疝而女帶瘕

- 陰脈之海

衝脈 : 氣衝 - 幽門 - 氣逆而裏急

- 十二經脈之海

帶脈 : 帶脈 - 維道 - 腹脹滿而腰溶溶(寒濕弛緩無力)

- 平臍如帶 統束諸脈

陽蹻脈 : 申脈 - 風池 - 陰緩而陽急, 陽急而狂奔

- 足太陽之別(主身左右之陽氣)

陰蹻脈 : 然谷(照海) - 睛明 - 陽緩而陰急, 陰急而足直

- 足少陰之別(主身左右之陰氣)

陽維脈：金門 - 瘕門 - 苦寒熱 - 維絡諸陽  
陰維脈：築賓 - 廉泉 - 苦心痛 - 維絡諸陰

#### 4. 十二經筋(經脈의 氣가 “結, 聚, 散, 絡” 한 筋肉)

- 1) 十二經筋의 개념과 작용：- 經脈의 氣가 근육에서 結, 聚, 散, 絡된 것  
- 經脈에 연속된 筋肉系統(肌肉, 筋腱, 筋膜, 靱帶)을 말함
- ① 連結四肢百骸, 主關節運動：全身을 연락하여 關節運動作用을 주관(骨格約束, 關節屈伸運動)
- ② 十二經脈의 筋肉系統에 부속하여 體表上的 筋肉層을 운행

#### 2) 순행특징

- ① 淺部에 분포(體表)
- ② 四肢末端 → 頭部, 軀體로 주행  
關節, 骨格에 結과 聚하는 특징 - 前陰者 宗筋之所聚
- ③ 體表(알은 部位)를 통하여 행하고 臟腑에는不入

#### 5. 12皮部

- 1) 개념：經絡分布部位에 따른 體表의 皮膚分區(皮膚에서 經絡이 분포하는 부위를 구분한 것)
- 2) 기능 ① 生體를 保衛하고 外邪에 대한 防禦 작용  
② 內部 病變을 반영하고 傳導하는 작용
- 3)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활용  
① 診斷：皮膚의 色澤과 形態의 변화를 관찰하여 臟腑, 經絡의 病變 진단  
예) 視其部中有浮絡者, 皆陽明之絡也. 其色多青則痛, 多黑則痺, 黃赤則熱, 多白則寒, 五色皆見, 則寒熱也,  
② 皮膚를 刺하는 방법：毛刺, 半刺 등  
기타 치료법：敷貼, 溫灸, 熱熨등을 皮膚의 일정부위에 시술.

#### ■ 五俞穴의 脈氣狀態와 五行配屬, 主病

五輸穴	井	榮	輸	經	合
陰經(臟)→	木,	火,	土,	金,	水,
陽經(腑)→	金	水	木	火	土
靈樞, 九鍼十二原篇	二十七氣所出	溜	注	行	入
主病	心下滿, 神志病	身熱	體重節痛	喘咳寒熱	逆氣而洩
비고	治救急	治發熱	治關節痛	治喘咳感冒	治慢性病

#### ♣ 알아야 할 特殊穴

1. 原穴：手足三陰經은 五腧穴의 輸穴로써 原穴을 대신하고 陽經의 原穴은 따로 존재,  
- 五臟六腑의 虛症性 질환  
- 五臟六腑의 診斷反應點 출현(五臟有疾也應出十二原)
2. 絡穴：- 臟腑의 表裏 兩經에 있어서의 有關 病證 치료. 疼痛질환
3. 郄穴：- 體內的 氣穴이 일부의 공간(빈틈)에 모이는 중요한 穴位로 16개가 있다  
(經脈氣血이 曲折하여 모이는(骨과 肉사이) 氣血匯聚之處)  
- 內臟의 急性病, 臟腑의 急性 疼痛
4. 腹募穴：- 胸腹部의 體表에 위치, 臟腑의 經氣가 모이는 곳  
- 陽性病치료(腑病, 實證, 熱證) - 從陰引陽 (cf)異說：腑病, 慢性病, 虛證 主治)
5. 背俞穴：- 脊椎 兩側 體表에 위치, 臟腑의 經氣가 모이는 곳  
- 陰性病치료(臟病, 虛證, 寒證) - 從陽引陰
6. 六腑下合穴(合穴과 구분하기 위해 下合穴, 六腑의 치료에 사용, 종아리에 모여있다)

胃 → 足三里 ↘  
 大腸 → 上巨虛 → 足陽明胃經 ↘  
 小腸 → 下巨虛 ↗  
 膀胱 → 委中 → 足太陽膀胱經 → 足三陽經  
 三焦 → 委陽 ↗  
 膽 → 陽陵泉 → 足少陽膽經 ↗

## 7. 八會穴

臟會	腑會	氣會	血會	骨會	脈會	筋會	髓會
章門 (脾經募穴)	中脘 (胃募穴)	膻中 (心包募穴)	膈俞 (膀胱經)	大杼 (膀胱經)	太淵 (肺經原穴)	陽陵泉 (膽經合穴)	絕骨 (膽經)

## 8. 腹募穴

肺經	大腸經	胃經	脾經	心經	小腸經	膀胱經	腎經	心包經	三焦經	膽經	肝經
中府	天樞	中脘	章門	巨闕	關元	中極	京門	膻中	石門	日月	期門

## ■ 十二經脈 주요내용 定理

(八會穴表)

(六腑下合穴表)

(八脈交會穴表)

八會	穴名	八會	穴名	腑	經穴	所在經脈	本經	八穴	通穴脈	主治
臟會	章門	腑會	中脘	胃	足三里	足陽明	足太陰(脾)	公孫	衝脈	心, 胸, 胃 (痛症을 爲主)
筋會	陽陵泉	脈會	太淵	大腸	上廉	足陽明	手厥陰(心包)	內關	陰維	目內眦, 頸項(項強), 耳, 肩膊, 小腸, 膀胱
骨會	大杼	髓會	絕骨	小腸	下廉	足陽明	足太陽(膀胱)	後谿	督脈	目外眦, 耳後, 頰, 頸
血會	膈俞	氣會	膻中	膀胱	委中	足太陽	足少陽(膽)	申脈	陽蹻	目外眦, 耳後, 頰, 頸 (膽經筋 異常時), 肩
				三焦	委陽	足太陽	手少陽(三焦)	外關	陽維	(膽經筋 異常時), 肩
				膽	陽陵泉	足少陽	手太陰(肺)	列缺	任脈	肺系, 咽喉, 胸膈
							足少陰(腎)	照海	陰蹻	

## ■ 五俞穴의 脈氣狀態와 五行配屬, 主病

五輸穴	井	滎	輸	經	合
陰經(臟) 五行屬性	木	火	土	金	水
陽經(腑) 五行屬性	金	水	木	火	土
靈樞, 九鍼十二原	二十七氣所出	溜	注	行	入
主病	心下滿, 神志病	身熱	體重節痛	喘咳寒熱	逆氣而洩
비고	治救急	治發熱	治關節痛	治喘咳感冒	治慢性病

※ 二十七氣 : 十二經脈과 十五絡脈

■ 主要 穴 암기요령

經 絡	穴數	脈長	流注	屬絡	起絡穴	氣血	井 榮 俞 經 合					原	絡	郄	募	背俞
手太陰肺經	11	3尺 5寸	從胸 走手	屬肺 絡大腸	中府 少商	氣多血少	少商	魚際	太淵	經渠	尺澤	太淵	列缺	孔最	中府	肺俞
手陽明大腸經	20	5尺	從手 走頭	屬大腸 絡肺	商陽 迎香	氣多血多	商陽	二間	三間	陽谿	曲池	合谷	偏歷	溫溜	天樞	大腸俞
足陽明胃經	45	8尺	從頭 走足	屬胃 絡脾	承泣 厲兌	氣多血多	厲兌	內庭	陷谷	解谿	足三里	衝陽	豐隆	梁丘	中脘	胃俞
足太陰脾經	21	6尺 5寸	從足 走胸	屬脾 絡胃	隱白 大包	氣多血少	隱白	大都	太白	商丘	陰陵泉	太白	公孫 大包	地機	章門	脾俞
手少陰心經	9	3尺 5寸	從胸 走手	屬心 絡小腸	極泉 少衝	氣多血少	少衝	少府	神門	靈道	少海	神門	通里	陰郄	巨闕	心俞
手太陽小腸經	19	5尺	從手 走頭	屬小腸 絡心	少澤 聽宮	氣少血多	少澤	前谷	後谿	陽谷	小海	腕骨	支正	養老	關元	小腸俞
足太陽膀胱經	67	8尺	從頭 走足	屬膀胱 絡腎	睛明 至陰	氣少血多	至陰	足通谷	束骨	崑崙	委中	京骨	飛揚	金門	中極	膀胱俞
足少陰腎經	27	6尺 5寸	從足 走胸	屬腎 絡膀胱	湧泉 俞府	氣多血少	湧泉	然谷	太谿	復溜	陰谷	太谿	大鍾	水泉	京門	腎俞
手厥陰心包經	9	3尺 5寸	從胸 走手	屬心包 絡三焦	天池 中衝	氣少血多	中衝	勞宮	大陵	間使	曲澤	大陵	內關	郄門	臍中	厥陰俞
手少陽三焦經	23	5尺	從手 走頭	屬三焦 絡心包	關衝 絲竹空	氣多血少	關衝	液門	中渚	支溝	天井	陽池	外關	會宗	石門	三焦俞
足少陽膽經	44	8尺	從頭 走足	屬膽 絡肝	瞳子膠 竅陰	氣多血少	足竅陰	俠谿	足臨泣	陽輔	陽陵泉	丘墟	光明	外丘	日月	膽俞
足厥陰肝經	14	6尺 5寸	從足 走胸	屬肝 絡膽	大敦 期門	氣少血多	大敦	行間	太衝	中封	曲泉	太衝	蠡溝	中都	期門	肝俞

手太陰肺經	少商이 어제 太淵에서 經渠망동하다 빠졌태(尺澤), 그래서 공치(孔最)고 中府로 왔다
手陽明大腸經	商陽고 2, 3학년에는 영계(陽谿)가 꼭있지(曲池), 하고만(合谷)은 偏歷중 따스한 溫溜가 天樞 한이다
足陽明胃經	여내함 해삼충은 풍성한 양고기로 가운데를 완전히 채워야 맛이다
足太陰脾經	은대태상도 陰陵泉 大包地機하다 章門이 된사람이다.
手少陰心經	소소한 神靈이 少海의극한 곳의 巨闕에 산다
手太陽小腸經	작은 집 앞 계곡의 후계 양곡소가 완전골수로 지정한 養老를 하여 關元에 봉해졌다
足太陽膀胱經	지통속근위원회가 경비양기로 金門지나 中極으로 갔다
足少陰腎經	용연 태부 陰谷 수천번이나 京門를 드나들고
手厥陰心包經	중로대의 間使 曲澤이 大陵 내의 郄門에서 臍中을 치료...
手少陽三焦經	관청의 액연가 중재는 支溝어디나 천양지차고 외관의 모임두목은 더욱 돌대가리다..
足少陽膽經	귀여운 협객은 족히임을위해 陽輔없이 양을쳐 구어 光明시 변두리언덕에서 日月이 다하도록...
足厥陰肝經	큰돈이 행낭에 대충넣어도 중산충봉급의 꼭천배네, 대충 쓸려구해도 중도에 생기문 걱정이네

本經	八穴	通穴脈	主治
足太陰(脾)	公孫	衝脈	心, 胸, 胃 공손한 충신이 내관이 음흉한 것을 심위흥본다 (痛症을 爲主)
手厥陰(心包)	內關	陰維	
手太陽(小腸)	後谿	督脈	目內眥, 頸項(項強), 耳, 肩膊, 小腸, 膀胱후진독신교들의 경향은 이내 건박진 소방차에 채인다는 것이다
足太陽(膀胱)	申脈	陽蹻	
足少陽(膽)	足臨泣	帶脈	目外眥, 耳後, 頰, 頸(膽經筋 異常時), 肩 외관이 외자로 경험이후 어깨들과 통유해서 임대업을 한다
手少陽(三焦)	外關	陽維	
手太陰(肺)	列缺	任脈	肺系, 咽喉, 胸膈 열린조교들은 폐인을 홍보며 격해지지 않는다
足少陰(腎)	照海	陰蹻	